

아렌트(Arendt)의 노동 개념

김 선 욱*

I. 노동 개념의 지위

아렌트(Hannah Arendt, 1906~75)가 정치사상가로서 현대사상사의 핵심적 지위에 서게 된 것은 그녀의 독특한 개념 분석에 의거한 바가 많다.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명은 아렌트의 사상을 여성주의에서 철학, 정치, 심지어 역사와 문학적 상상력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구분과 더불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분, 그리고 인간이 하는 활동의 세 차원, 즉 노동과 작업과 행위의 구분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적 영역에는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함께 존재한다. 사회적인 것이란 어떤 단일한 척도를 통해 평가가 가능한 것을 말하고, 경제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정치적인 것이란 인간의 다원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 서로 다름, 의견의 차이 등으로 묘사될 수 있고, 이러한 차이의 영역은 절대적 기준이나 준거를 통해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다.

경제(economy)는 원래 가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oikos에서 파생된 말이다. 경제란 원래 가정에서 다루어진 사적인 문제였다. 이는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적인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정치적 관심을 다 끌어가는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는 개인의 차원에서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경제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참여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아테네에서의 정치 참여에 노예가 배제되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노동 개념은 인간의 활동 전부를 포괄하는 것으로 오늘날 많이 이해되어, 심지어 지적인 활동까지도 노동 개념으로 포괄하여 지적노동자와 같은 개념과 교수노조와 같은

*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swk@ssu.ac.kr).

단체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근대의 산물이며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한 마디로 이 개념을 처단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 활동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구명해 보면 노동의 차원과 정신적 활동의 차원의 환원될 수 없는 차이들이 분명하게 된다. 고대에는 가정에서만 이루어졌던 노동이 근대에 와서 해방된 노동으로서, 경제라는 공적 영역의 내부에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노동운동이 대표적인 사회적 운동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하지만 노동의 성격에 대한 본질적 규명은 이러한 노동운동의 기본적 특성을 노출시킨다.

II. 아렌트의 노동 개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활동의 세 차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펼친다. 노동(labor)은 인간이 몸을 통해 하는 수고로서, 인체의 신진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일이다. 곡식을 생산하고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의 산물은 곧 바로 소비(consumption)되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영어 단어 ‘labor’는 노동의 결과로 산출된 산물을 지칭하는 법이 없고 단지 활동 자체만을 지칭한다.

작업(work)은 손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거와 의복 등의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다. 장인이나 제작자의 활동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의 활동의 산물은 보다 항구적이며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따라서 이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use)의 대상이다. 한편 인간의 자유로움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드러내어 말하고, 또 사회 내에서의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규정하는 정치적 활동은 행위(action)이라고 불린다. 이는 무형의 것으로서 말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원적 가치가 보호되고 주장되는 영역이다. 억압을 당할 때는 폭발하며, 공동의 행위가 집단적으로 표출되어 혁명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공동행위를 통해 이룩한 업적이나 합의의 내용은 법이 되거나 규약으로서 사회를 규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노동은 노예의 활동이었다. 노예는 물론 자유인이 아니었다. 한편 제작자나 장인은 자유인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다. 정치 참여는 이와는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했다 때에는 정치에 대한 참여가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본뜻이 아니고 오역이다).

노예가 경멸을 받았던 것은 노예가 노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에 인간

을 노예로 만드는 성격이 있다. 노동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먹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 한에서 인간은 자연적 필연의 노예이다. 이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적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노동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했다.

고대의 노예제는 인간을 노동이라는 조건에서 분리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는 노동이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 신성시되었고, 노동과 작업의 구분은 사라졌다. 이는 근대에 와서 모든 것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기 때문이었고,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는 그 내용적 구분과 상관없이 생산성만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근대의 사상이 가운데 노동과 작업의 본질적 차이에 주목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담 스미스나 카를 마르크스는 모두 생산성에만 중요성을 두었고 이 때문에 노동이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근대에는 개인이 보살피던 재산이 확대되어 자본의 규모로 발전했고, 국가는 경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돌보게 되었다. 이 가운데 인간의 활동과 그 산물의 특성 간의 구별은 점차 모호하게 되었고, 노동이 점차 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농업은 기계화되었고, 공장 중심의 산업화는 수많은 사람을 임노동자로 만들어 작업이 생계의 수단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통해 생산된 내구성을 가진 물건은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기계가 발전하고 대량생산 체제가 수립되면서 수공업이 쇠퇴하고 숙련공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와 더불어 작업은 점차 단순 반복적 노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생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이제 노동으로 간주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오늘의 사회는 소비사회가 되었고, 모든 것은 단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창조성과 개성이 핵심을 이루는 지적 활동도 역시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여 스스로 노동의 성격을 자임하게 된다. 지식인은 스스로를 지식인 노동자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사유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유가 글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은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생각을 할 때는 신체적 활동이 중지되고 사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길이 없는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글을 쓸 때는 생각이 종료된 뒤 이미 이루어진 생각을 기억을 통하여 회상해 낸 다음 손의 작업을 통해 글이라는 객체적 형태의 물체로 전환을 해야 한다. 지적 작업의 생산성은 글을 만들어 내는 작업의 생산성일 수는 있지만, 사유는 생산성의 잣대로 규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열 시간의 노동의 산물은 한 시간의 열 배가 될 수 있지만, 열 시간의 사유의 산물이 한 시간의 사유의 열 배가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Ⅲ. 노동과 노동운동

노동운동이란, 이상에서 설명한 사회적 관점을 탈피하지 못한 채 인간의 활동을 전적으로 노동의 관점에서 규정한 뒤 이루어지는 인간의 해방운동이다. 노동운동은 억압과 착취로부터 노동자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오늘의 노동운동은 임금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까지 포괄하여 생활운동의 차원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진화의 배후에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전적으로 포괄하게 된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아렌트가 보기에 노동운동이 곧 자유에로의 해방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가 추구한 것이 궁극적으로 자연의 필연으로부터의 해방이었고 인간적인 삶의 회복이었지만, 그가 전망한 노동의 해방이 기약하는 것은 소비를 위한 시간의 확보일 뿐이다.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설명된 이상적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마르크스가 망각한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노동을 노예에게 맡기고 확보하려 했던 정치적 삶의 가치이다.

정치적 자유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구가하는 삶의 중요성을 마르크스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린 공산주의적 이상향에서는 정치가 해소되고 소멸되어 버린다. 노동이라는 단일한 시각으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로서는 인간의 다원성에 바탕을 둔 차원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노동운동은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KL]**